

담양군, 저지방한우 브랜드

육성으로 경쟁력 향상

‘명품 저지방한우 브랜드 육성 협의회’ 개최



담양군은 지난 8일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에서 차별화된 담양한우 생산기술개발을 위한 ‘담양 명품 저지방한우 브랜드 육성 협의회’를 실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한우 사육농가, 축

산단체, 유통업체, 축산관련 담당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 담양 명품 저지방한우 브랜드 육성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과 저지방한우 브랜드 사업단 구성 등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토의했다.

저지방 한우 브랜드 육성은 부가가치가 높은 한우 가공식품을 개발해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와 담양한우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인체에 유해한 지방산을 줄이고 고기의 탄력(연도, 다즙성, 향산화도), 단백질 함량, 면역기능을 높이는 사양관리 프로그램을 적용, 생산해 경쟁력을 갖추고자 한다.

또한 육성 한우가 대중화 바랍을 타고 있는 시점에 맞춰 담양만의 특별한 사양관리와 육성 등의 과정으로 지방이 적은 고기라도 충분히 부드럽고 풍부한 육즙을 즐길 수 있도록 해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이병창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담양 명품 저지방한우 브랜드 육성은 민선 7기 담양군의 역점시책으로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 내년 향토산업 육성사업과 연계해 담양명품 저지방한우 브랜드를 육성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영광군, 청년 소상공인 가업승계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영광군은 장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가업 승계를 희망하는 청년에게 사업 활성화 비용을 지원하는 청년 소상공인 가업승계 지원사업 신청자를 8월 22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전남도 ‘전남인구, 새로운 희망찾기 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추진되며 지원대상은 관내에 주소지(영업장소 및 거주지)를 둔 소상공인 중 2대 이상 가업 승계를 희망하는 청년(만19~45세)이다.

단 프랜차이즈 가맹점,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사치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등은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시제품 제작, 디자인(포장 디자인 비용), 브랜드 개발, 광고홍보비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분야에 지원되며 사업장 현장 멘토링을 통해 사업장 점검이 이루어지고 전문경영을 위한 세무, 노무 교육 등이 지원된다.

최종 지원대상자는 현장점검, 발표평가를 거쳐 총 5개 업체가 선정되며 선정된 사업장에는 1개 업체당 3백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8월 22일까지이며 신

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메일(arthouse@cce.ikr)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접수방법은 영광군청 및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061-661-1933)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청년 소상공인 가업 승계를 통해 노력되는 점포에 활력을 되찾고 청년상인들은 제품력과 노하우를 전수받아 청년창업의 새로운 성공모델이 탄생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장흥군, ‘벼 병해충’ 종합방제 나서

16일까지 문고병·도열병 등 집중 방제 기간 설정

장흥군은 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6일까지를 종합 방제 기간으로 설정했다.

최근 벼 병해충 상습지 예찰결과 고온·다습조건에서 발생하는 잎집무늬마름병, 도열병, 흰등껍질 등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벼노린재는 현재 약충이 부화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출수기 전후 병해충 발생은 벼 수확량과 직결되므로 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벼노린재 등 벼 병해충 종합 방제를 동시에 해야한다.

특히, 이삭도열병의 경우 한 번 발생하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벼 이삭이 2~3개 펴 무렵과 1차 방제 후 5~7

일경 2차 방제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벼노린재 또한 이삭 흡즙시 반점을 유발하고, 말리죽이 품질이 떨어지게 하므로 발생초기에 방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흥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생 초기에 등록된 약제를 안전사용기준에 맞추어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벼에서 열대기세미나방 유충 발견 즉시 장흥군농업기술센터(860-0556)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함평군보건소 하반기 치매예방교실 운영

함평군보건소가 오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약 3개월 간 보건소 통합건강증진센터에서 하반기 치매예방교실을 운영한다.

고령인구의 치매예방 및 인지기능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은 치매고위험군, 경도인지자를

포함한 60세 이상 지역주민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대상자들은 주 3회씩 총 35회기 동안 ▲치매선별검사 ▲치매·우울증·노인자살 예방 워크북 학습 ▲인지기능 활성화 프로그램(음악치료·도예교실·원예교실·공예교

실) 등 다양한 비약물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주민의 치매예방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며 “이번 치매예방교실이 치매에 방은 물론, 치매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감소를 이뤄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김정훈 기자



장성군, ‘농업용 드론’

활용 스마트 농업 선도

드론 자격증 교육 추가 운영

장성군이 심화되고 있는 농촌 고령화와 노동력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첨단농업기계를 활용한 스마트 농업 보급에 나선다.

장성군은 병해충 방제, 종자 파종 등 다양한 농작업에 활용할 수 있는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을 하반기에 추가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평균 250만 원 가량의 드론 교육비의 50%, 최대 125만 원을 지원한다.

교육 신청 기간은 오는 20일까지이며, 신청자격은 만18세 이상 70세 이하의 장성 거주 농업인이다.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접수 완료 후 26일부터 3주간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 진행된다.

농업용 드론 자격증반 교육은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항공법규, 기상, 비행이론 및 운용원리 등의 이론교육과 함께 실제 비행훈련을 통해 체계적인 실습교육으로 이루어진다.

화순군, 해충기피제 보관함 설치·운영

만연사 등산로·동구리 정각주차장 등

화순군은 모기, 진드기 등 해충으로부터 주민의 불편을 덜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해충기피제 보관함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해충 기피제 보관함은 만연사 등산로, 석봉미술관 쉼터, 동구리 정각주차장, 만연사 큰재,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이서커뮤니티센터, 한천 휴양림, 백이산 휴양림, 능주면 천덕리 마을회관, 화순읍 이십곡리(은곡노인회관) 등에 설치했다. 매년 5월부터 11월까지 상시 운영하고 있다.

해충 기피제는 친환경 제품으로 피부 자극이 없고 2~3시간 정도 모기나 진드기 등의 접근을 막는 효과가 있다. 얼굴을 제외한 피부나 겉옷에 적당량 가볍게 분사하여 사용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예방 백신이 없어 개인위생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농작업이나 야외활동을 할 때 모기나 진드기에 물린 상처가 있고 피부발진, 발열 증상 등이 나타나면 곧바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나주시, 명품 다도마늘 육성 박차

나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8일 남평농협 다도지점에서 농업인 20여 명을 대상으로 지역별 특화작물 육성을 위한 ‘마늘’ 재배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농작물 생산량 증대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 및 판로확대를 위한 특화 작물 육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육성 작물로 다도 마늘을 선정해 추진했다.

다도지역은 토양의 물 빠짐이 좋고 산간지역 기후 여건으로 마늘 재배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어, 맛과 향이 좋은 마늘 산지로 꼽힌다.

하지만 마늘을 특산물로 생산하는

타 지자체에 비해, 생산량이 적고 품질이 균일하지 못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배·생산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농업기술센터는 이번 교육을 통해 마늘 무병종주 조제배양, 종구관리 중요성, 병해충 방지, 영농시기별 재배·관리 방법 등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춘 전문 기술을 제공했다.

나주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향후에도 판매 마케팅을 위한 기술경영 교육, 농기계 소독분석 및 평가 등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해 지역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명품다도마늘 육성에 최선을 다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